

순창군, 전통장 활용 관광객 유치 나선다

시, 500만 목표로 음식·문화 행사 연계 적극 활용

토굴체험·장독대 분양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전통발효문화가 관광객 500만명의 발길을 불러들이는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 활용된다.

순창군은 올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위해 전통 장을 활용한 음식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음식문화 체험은 장독대 문화학교와 전통 장 농촌문화학교, 장독대 분양행사 등 장 담기 문화체험을 크게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독대 문화학교는 올해 서울 시내 초·중학교 20개교를 대상으로 1박 2일간 순창 고추장 민속 마을에 머무르면서 기능인과 함께 전통 장을 담그고 전통발효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독대 학교는 지난 2015년 5개교를 시작으로 2016년 7개교, 올해는 20개교까지 늘어나는 등 체험하려는 문이 이어지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학생들과 함께 담그는 장은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학

생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순창군 설명이다.

전통 장 문화학교는 온 가족이 전통 장을 담그고 기능인의 집에서 밥상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도시민에게 민족 고유의 전통 장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마련해 선보일 계획이다. 순창군은 올해 17차례 관련 프로그램을 체험농장과 연계, 진행할 예정이다.

장독대 분양행사는 관광객이 담그는 장을 숙성하면 보내주는 행사로, 오는 3월 3일 펼쳐질 예정이다.

이외 한복 입고 고추장 민속마을 거닐며 사진찍기, 인절미 만들기, 이야기가 있는 발효 소스 토굴체험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곁들여진다.

순창군은 지난해 전통 장 문화학교 체험객만 1100명이 넘고 고추장민속마을을 중심으로 '장류특구' 내 산업시설을 이용한 산업관광객도 2600여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순창에서 열린 장 담그는 날 행사에 참석한 가족들이 전통 장을 담그는 체험을 하고 있다. <순창군 제공>

순창만의 독특한 전통 발효 문화가 전국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순창은 발효과학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곳"이라며 "가족 단

위 여행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발효문화 체험프로그램을 마련, 지역 관광 활성화와 장류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기자 jyj@kwangju.co.kr



순창 구불 4길 구슬미길 전경. 순창저수지를 따라 걷는 구슬미길은 겨울철 정취를 만끽하기 좋은 곳이다. <한국관광공사 제공>

겨울 끝자락...역사와 자연속 걸어볼까

전북 '구불4길 구슬미길'

관광공사 '걷기 좋은길' 선정

사람 손길이 닿지 않는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순창호수를 즐길 수 있는 '구불4길 구슬미길'(18.3km)이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2월, 걷기 좋은 길로 뽑혔다.

지난 31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월의 '걷기 좋은 여행길 10선'에 순창 구불길 4코스인 구슬미길을 포함, 8개 코스를 선

정했다.

'구슬미길'의 핵심구간은 순창저수지 연안을 따라 걷는 수변 오솔길로, 눈 내린 후 걷게 되는 대나무숲 구간은 겨울철 걷기 좋은 길로 손꼽힌다.

호수를 감싸고 있는 방풍림과 원시림은 상쾌한 공기가 가득해 걷는 재미가 쏠쏠하다. 걷기 난이도도 쉬운 편이어서 가족과 함께 걷기 좋다는 게 관광공사 설명이다.

순창시 옥산 맥심석 허브 한증막을 시작으로 우동마을~순창저수지~옥산면사

무소~장군봉~바지런철쭉재원~순창역저수지를 도는 데 대략 6시간 30분이 걸린다.

구슬미길은 걷기 좋고 코스 주변 풍광이 뛰어나고 생태·문화·역사 등이 어우러진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전북도의 '전북 1000리길'에도 선정됐다.

전북도는 해안길, 강변길, 산들길, 호수길 등 4개 테마를 중심으로 1000리길을 뽑았고 구슬미길은 호수길에 포함됐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정읍시, 밸런타인데이 대비

초콜릿·캔디류 위생 점검

보건소, 5~7일 집중 단속

정읍시가 밸런타인데이에 판매되는 초콜릿 위생 점검에 들어간다.

지난 31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 보건소는 밸런타인데이(14일)와 화이트데이(3월14일)를 앞두고 판매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콜릿·캔디류에 대한 위생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보건소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초콜릿류와 캔디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지역 업소를 대상으로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제조공정 상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 여부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초콜릿과 캔디류 제품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성기자·전북취재본부장



2일 문을 여는 빛 고운 야시장 전경. <군산시 제공>

군산 명산시장에 '빛 고운 야시장' 선다

내일 개장...이벤트·공연 등

군산 명산시장 내 야시장이 2일 문을 연다.

지난 31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명산시장을 근대역사 체험시장인 '빛 고운 야시장'으로 특화해 오는 2일 개장하고 야간에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 곳곳에는 근대역사 체험시장에 어울리게 ▲근대역사 스토리텔링 벽화 ▲근대역사를 소재로 한 밀랍인형 ▲일제강점기 우물 체험센터 등이 조성됐다.

개장 당일 길거리를 돌며 게릴라 콘서트 형식으로 개장 홍보 행사가 펼쳐

지고 오후 5시부터는 개장 축하공연도 진행된다.

또 야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2일부터 4일까지 상품권 이벤트를 진행하고 사진 무료 인화 이벤트, 추억의 먹거리 구워먹기, 무료팝콘 증정 등의 행사도 열린다.

'빛 고운 야시장'은 2월에는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 오후 6시~9시까지 열고 3월부터 상인회와 야시장 운영자 간 협의를 거쳐 운영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생동하는 시장문화를 창출, 야간 먹거리 관광 명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자연장지 '남원추모공원' 오늘부터 운영

남원에 자연장지인 '남원추모공원'이 들어섰다.

남원시에 따르면 1일부터 운영되는 자연장지는 국비 6억원 등 모두 12억원이 투입돼 1만㎡ 규모로 조성됐다.

잔디장, 수목장, 화장장 형태로 3580기를 안치할 수 있으며 유택동산, 휴게

남원시에 추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살다가 숨진 시민이나 남원지역에 있는 분묘를 개장한 유골에 우선권을 준다.

1기당 50만원에 4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자연장은 화장한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밭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방법으로 친환경적으로 알려졌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익산 옹포캠핑장, 가족 테마형 캠핑장으로 조성

익산시는 금강 인근 옹포캠핑장에 레저시설을 확충해 가족 테마형 캠핑장으로 조성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시는 18억원을 투입해 어린이 놀이터, 생태놀이 체험시설, 수경시설, 편의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옹포캠핑장 6면과 일반캠핑장 58면

도 정비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익산의 대표적인 테마형 캠핑장으로 조성해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관광지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옹포 캠핑장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해 7대 일몰지로 선정됐다.

익산=유정영기자 yij@

"점포임대"

- 광주 북구 매곡동 214-4번지 (대화아파트 상가)
- 1층, 5평, 버스승강장 바로앞, 장소좋음
- 보 500만원에 월세 40만원
- 현, 옷가게, 타업종 가능
- 비/권 - 1350만원
- 문의. 010-3605-50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 · 전원주택지

- 전북 정읍시 첨단산업단지 3300여㎡ 평당 42만원
- 장성 북이면 장성면 11953㎡(3615평) 매도 6억4천
- 완도 익산면 독립리 바다전 2481㎡ 민박집적합 분할가 2억4천
- 장흥 수문해수욕장 팬션 등 적합 2346㎡ 분할가능 평당 70만원
- 장성 북이면 백양동계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주택 · 원룸 · 아파트

- 월산동 소방도로코너 2층 상가주택 땅 93㎡ 집 94㎡ 1억2300
- 북구 운암동 한국아파트 165㎡ 전방중을 13층 2억5천
- 월산동 소방도 대지 146㎡ 복층형주택 76㎡ 생활권리 1억6천5백
- 월산동 우체국부근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294㎡ 주택2동 2억3천

투자 · 매도 · 교환

- 월산동 라인이파트부근 758㎡ 다세대 등 적합 7억
- 목포시 다세대 33평 32세대 허가 3023㎡ 13억7천
- 월산동 월산아파트옆 664㎡ 주택·사찰 적합 4억6천
- 담양군 창평 의항리 9544㎡ 공장·창고 적합 평당 40만원
- 함평읍 돌마리해수욕장 5606㎡ 요양시설·숙박시설 다각구적합 5억

상가건물

- 서구 한진 건너편 소방도 대지 99㎡ 신축2층건물 100㎡ 3억6천
- 백운동 빌라 대지 314㎡ 건물 527㎡ 매도 7억5천
- 양동 모빌·커피숍·노래방 대지 577㎡ 건평 1164㎡ 12억5천
- 월산동 버스도로 대지 155㎡ 4층건물 263㎡ 임대 생활적합 3억7천
- 유동 삼성병원부근 대지 598㎡ 건평 334㎡ 식당등 다용도 9억2천
- 월산동 농성초교 건너편 대지 132㎡ 미트와 주택(3층) 189㎡ 4억6천
- 주월동 우정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45천

급매

- 해남 현산면 전 2752㎡ 공시지가 매도 1700만원
- 장성 북이면 수성리 전 2136㎡ 창고 등 적합 4500만원
- 신안군 압해읍 북동리 전원주택등 적합 3206㎡ 5300만원
- 중흥시장 부근 4층 상가주택 177㎡ 건물 482㎡ 2억4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주택

- 치평동 5층 건물(보증금 1.7억 980만) 매 25억원
- 금호동 7층 건물(보증금 5.4억 월 1,300만) 매 32억원
- 용봉동 4층 건물(보증금 1억, 월 745만) 매 17.5억원
- 하남동 4층 건물(보증금 6.2억 월 2,200만) 매 53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 28억(보2억, 월 1,200만 포함)
- 신정동 2층 건물(보증금 2억 월 1,100만) 매 27억원
- 월곡동 5층 건물(보증금 4억 월 540만) 매 25억
- 쌍암동 5층 건물(보증금 3억 월 1,580만) 매 43억
- 송정동 물류창고 대 1,000㎡, 건 500㎡ 매 24억
- 나주시 성북동 1층상가 대 489㎡ 건 322㎡ 매 7억2천
- 양산동 원룸 대 300㎡ 매 7억8천(보1억, 월 4백만, 안집)

토 지

- 서구 서창동 대지 2중주거지역 1,760㎡ 매 13억6천
- 광산구 남산동 대지 1중주거지역 421㎡ 매 1억5백만
- 임암동 호천지구 근생용지 320㎡ 매 10억5천
- 화정동 대지 준주거지역 1,000㎡ 매 50억
- 산정동 생산녹지,창고용지 3,810㎡ 매 20억
- 광산구 소촌동 자연녹지 3,800㎡ 매 27억(공업사 물류창고 적합)
- 광산구 비아동 자연녹지 6,130㎡ 매 37억(공업사 물류창고 적합)
- 광산구 우산동 상업지역 코너지 대지 612㎡ 매 12억
- 광산구 운남동 생산녹지 3,000㎡ 매 13억2천(물류창고 야적장 적합)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답 3426㎡ 4억2천(모텔허가 특)
- 도곡면 원화리 계획관리지역 내대지 5,355㎡ 매 33억(요양병원적합)
- 담양군 대전면 생산리 1중주거지역 전 1,637㎡ 4억6천(창고적합)
-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계획관리지역 전 5,000㎡ 매 8억5천
- 금천면 석전리 계획관리지역 대지,답 2,240㎡ 매 4억6천
- 정읍시 신정동 전 3,300㎡ 매 5억원 (전원주택,가든식당 적합)
- 고흥군 송림리 전 17,000㎡(약 5천평) 매 3.3㎡당 2실2만원 (토목공사완료, 바닷가토지, 남동향, 펜스, 카라반, 전원주택, 태양광적합)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6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스엔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